

청도 운문면의 아시조 추향

참제원 50여명에 단소이설론 나와



▲ 봉암재사에서 당회를 열고 있다.

10월 24일, 음력으로 9월 25일 정유丁酉로서 9월 하정일下丁日이 되는 정일定日에 경북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亭上里의 세칭 권릉하權陵下 단소壇所에서 안동권씨의 이세조二世祖 낭중공郞中公(휘 인행仁幸)과 배위 양천허씨陽川許氏의 무자년 가을 향사가 봉행되었다. 고려 개국초 낭중 벼슬을 한 낭중공은 시조 태사공의 독운獨胤으로서 모든 안동권씨가 그 자손이기 때문에 후손이 ‘이세조’라는 호칭 외에 ‘아시

조亞始祖’라고 더욱 기려 칭하고 있다. 이날 향사의 참제원은 50여명으로 어림되었다.

정상리 구룡산九龍山 지록枝麓에 자리한 단소와 1킬로쯤 상거한 아랫마을 봉하리鳳下里의 봉암재사鳳巖齋舍에 모두 원지에서 온 참제원은 당일 아침 9시에 입재하였다. 서울 지역에서 오는 후손은 전일 출발하여 영천시나 운문면 소재지의 여관에 투숙하고 시간에 대어 도착하여 입재하였다. 이번 향사의 수임首任은 지난 봄 춘

향시 도유사都有司로 천망된 경주의 좌운공파 시조후 37세世로서 경주종친회장 등을 지낸 권순국權純國씨였다.

권순국 수임과 권정달權正達 대종회장이 재유사齋有司들과 함께 봉암재사의 정당正堂에 좌정하고 참제원이 입실하여 권순갑權純甲 대종회간사장의 사회로 당회堂會가 열렸다. 수임의 인사말에 이어 권정달 대종회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대종회 중무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낭중공의 단소를 안동으로 이설移設키로 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다음달에 있는 안동 능동의 시조 태사공 향사의 대당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를 받아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당회석에서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음인지 이의를 발하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당회가 끝나고 본행례를 위한 제물봉송 행렬이 재사를 출발하게 되자 대여섯 명 참제원이 ‘선대로부터 80여년을 모셔온 이곳 단소가 이미 성지聖地가 되었는데 이를 없애고 이설한다는데 무슨 제사는 지내느냐’면서 발길을

둘러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다.

권순갑 간사장이 향례시의 유의사항을 공지시키고 후손 각자와 문중별의 제수헌성금 납입현황을 발표하였다. 이어 행사의 집사분방례執事分榜禮를 행하였다. 그 분방된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권순국權純國

아헌관 : 권혁찬權赫燦

중헌관 : 권재혁權載赫

진설 : 권혁세權赫世, 권재목權載穆, 권혁채權赫彩, 권오복權五福, 권인술權寅述, 권경웅權敬雄

축 : 권기룡權奇龍, 권혁광權赫光

찬자 : 권혁근權赫根, 권인탑權仁塔

봉향 : 권상윤權祥琿, 권경일權景一, 권상흠權相欽

봉로 : 권길상權吉相, 권오

복權五福, 권용호權容浩

봉작 : 권혁조權赫照, 권기도權奇鎬, 권창귀權昌軌, 권영탁權寧卓, 권혁성權赫性, 권태명權泰明

전작 : 권기대權奇大, 권오득權五得, 권오수權五洙, 권영한權寧漢, 권기현權奇現, 권오철權五哲

사준 : 권재주權在珠

집사분방례가 끝나고 10시경에 제물을 봉송하며 초헌관 이하가 도열하여 재사를 출발하였고 단소에 도착해서는 진설을 마치고 본행례가 11시경에 시작되었다. 30여분에 걸친 향례와 그에 이은 산신제 및 음복례를 행하면서 12시경에 단소에서의 행사를 마치고 하산하였다.

<사진·글 권奇允>



▲ 낭중공 단소에서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경기 장단 서곡리의 昌和公 추향

10월 셋째일요일 26일에 봉행



▲ 창화공 묘소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옛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瑞谷里 산112천지에 있는 추밀공파 시조후 14세 창화공昌和公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휘 준準의 묘소에서 2008년 가을 향사가 10월 26일 일요일 낮에 봉행되었다. 창화공의 향사는 10월의 셋째 일요일이 정일이다.

이날 참제원은, 서울에서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9시 20분에 출발하는 전세버스를 이용했고 타지에서는 각자의 승용차 편을 이용해 내도하였는데 50여명에 이르렀다. 작년에는 임진강을 건너는 데 파

주시 파평면 두포리의 전진교前進橋를 이용했는데 올해에는 그 동북쪽의 북진교北進橋, 일명 리비교를 이용했다. 북진교 남단에 집결하여 군부의 민통선 출입수속을 마치고 초소를 통과해 들어가 묘소에 도착한 시간은 11시가 조금 넘어서었다.

참제원들이 도기到記를 마치고 향례 집사자의 분정이 이루어진 다음 본행사에 들어가기 앞서 중종의 중회가 열렸다. 권병선權炳善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유인물로 마련한 ‘2008년 창화공중회 정기총회’ 자료를

배부하는 것으로 결산보고를 대신하였다. 권병선 회장은 이어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하고 산하 각문중의 분담 운영비 출연에 감사하면서 아직 분담금을 납입치 않고 있는 문중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리고 창화공의 유택과 관련하여 창화공의 외손인 한씨문중과의 타의에 의한 송사관계가 아직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회의를 마쳤다.

묘전에서 제수의 진설이 이루어지고 제관 및 제집사가 취위就位한 다음 집례의 창홀에 따라 분향·강신·참신·초헌·독축·아헌·중헌·사신례의 순으로 묘사가 봉행되었다. 이번 향사의 제주祭酒는 전북 순창 문중의 후손가에서 직접 빚어온 가양주를 썼는데 예필 후 참제원들은 그 제주를 음복하면서 정성을 치하하였다. 이날 분방된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권이윤權彝允

아헌관 : 권혁한權赫韓

중헌관 : 권정식權正植

집례 : 권혁동權赫東

축 : 권영부權寧夫

진설 : 권정택權貞澤

찬인 : 권선식權善植

집주 : 권혁봉權赫鳳

봉향 : 권혁록權赫祿

봉로 : 권순국權純國

봉작 : 권헌식權憲植

전작 : 권중택權鍾宅

창화공은 국재菊齋 문정공文正公 영도침의정승領都僉議政丞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 휘 보溥의 5남4녀중 장남으로 자는 평중平仲 호는 송재松齋이다. 고려 충렬왕 7년, 1281년에 출생하여 9세에 가훈家勳으로 재고판관이 되고 18세에 대전행수大殿行首가 되었으며 관례冠禮를 올릴 나이에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다.

우대언右代言과 좌대언左代言을 거쳐 검교침의정승檢校僉議政丞에 대우문大右文,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에 이르러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의 호를 받고 다시 삼중대광길창부원군三重大匡吉昌府院君이 되

었다.

공의 묘소는 현실玄室에 벽화壁畵가 그려져 있어 세칭 ‘서곡리 고려 벽화묘’로 불릴 만큼 당시에 왕공王公에 해당하는 규모로 예상되었는데 뒤에 봉사손奉祀孫이 화를 당해 외손 청주한씨淸州韓氏로 수호가 옮겨지고 오래 실전되어 6백여년이 지난 1991년에 문화재 당국에 의해 우연히 발굴조사된 벽화묘의 묘주墓主가 창화공임을 묘지석墓誌石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그 묘지명은 창화공의 문인門人 대제학 이인복李仁復이 짓고 글씨는 손자 제학 용鏞이 쓴 것을 얹은 판석板石에 마치 큰 비면碑面에 음각한 듯 새긴 것인데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전시가 안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진·글 권在琮>



▲ 묘정의 중종총회에서 권병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